데이터마이닝 기반 과불화화합물 노출 간암세포주(HepG2)의 차등 발현 유전자 및 생물학적 경로 분석 연구

이현정, 양소영*, 임길택, 송윤정, 최은창 한국전자통신연구원

ehj1224@etri.re.kr, *syyang@etri.re.kr, ktl@etri.re.kr, yjsong@etri.re.kr, ecchoi@etri.re.kr

Data-driven Gene Expression Profiling of PFAS-Exposed HepG2 Cells for Biomarker Discovery

Lee Hyeonjeong, Soyoung Yang*, Lim Kil Taek, Song Yun Jeong, Choi Eun Chang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 (ETRI)

요 약

본 연구는 과불화화합물 중 하나인 과불화옥탄산(PFOA)이 간암세포주(HepG2)의 전사체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였다. RNA-seq 데이터의 PFOA 노출군과 대조군을 비교하여 차등 발현 유전자를 도출하고 생물학적 경로 분석을 수행함으로써, 차등 발현 유전자들이 암의 진행 및 전이에 관여하는 경로와 연관됨을 확인하였다. 이는 과불화화합물이 간암의 악성화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하며, 향후 암 진행 관련 잠재적 바이오마커 후보로서 가능성을 보여준다.

I. 서 론

과불화화합물(Per and polyfluoroalkyl substances, PFAS)은 유기 불소계 화합물의 일종으로, 높은 화학적 안정성과 우수한 물리적 특성을 지니고 있어 반도체, 자동차 산업은 물론 일상생활용품까지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[1]. 그러나 난분해성 특성으로인해 자연, 인간, 생물체, 식품 등에 잔류하며, 체내에축적될 경우 발암 가능성 증가 및 호르몬 교란 등 인체건강에 여러 문제를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다. 특히대표적인 과불화화합물 중 하나인과불화옥탄산(Perfluorooctanoic acid, PFOA)은 간을주요 표적 장기로 하며 대사이상, 간독성, 발암과의연관성이 여러 연구에서 제기되었다 [2, 3].

본 연구에서는 PFOA 노출에 따른 간암세포주(HepG2)의 유전자 발현 데이터를 분석하여 과불화화합물의 간암관련 독성 기전을 탐색하고자 하였다. 이를 위해 PFOA처리군과 대조군에 대한 RNA sequencing (RNA-seq)데이터를 획득하고, 통계 기반 차등 발현 유전자를 발굴및 이와 관련된 생물학적 경로를 분석함으로써, PFOA노출이 HepG2 세포의 유전자 발현에 어떠한 변화를 유도하는지 확인하였다.

Ⅱ. 본론

간암세포주인 HepG2 를 대상으로 PFOA 를 125μM 농도로 37℃에서 24 시간 처리하였으며, 동일 조건에서 Dimethyl sulfoxide(DMSO)를 처리한 세포를 대조군으로 설정하였다. 각 실험은 2 회 반복으로 수행하였다. 이후 RNA-seq 을 통해 PFOA 노출에 따른 유전자 발현데이터를 획득하였다. 총 27,948 개의 유전자 중 하나이상의 샘플에서 발현값이 0 인 9,469 개 유전자는 실험에서 제외하였으며, 최종적으로 18,476 개 유전자를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.

대조군과 처리군에서의 유전자 발현 양상을 분석하여 PFOA 가 간암세포에 미치는 생물학적 경로 및 잠재적바이오마커 후보를 도출하기 위해, read count데이터에서 edgeR 기반 차등 발현 유전자(Differentially expressed gene, DEG) 분석을 수행하였다. 통계적 유의수준은 p-value<0.05, |log2FC|≥1 로 설정하였다. 총180 개의 DEG 가 PFOA 노출에 따른 유의미한 발현차이를 보였다. 이 중 111 개 유전자는 PFOA 처리 시상향 발현, 69 개 유전자는 하향 발현을 나타냈다.

추가적으로 다중검정(FDR<0.1)을 적용한 결과 상향 및 하향 발현 유전자를 각 18 개, 22 개로 확인하였다.

그림 1 은 DEG 유전자 발현 패턴을 heatmap 으로 시각화 하였다. 총 180 개의 DEG 에서 PFOA 처리군과 대조군 간 뚜렷한 발현 차이가 나타났으며, 이는 PFOA 노출이 HepG2 세포의 유전자 발현 패턴을 변화시켰음을 의미한다.

이어서 DEG 가 관여하는 생물학적 기능과 경로를 해석하기 위해 GO 및 KEGG 분석을 수행하였다. 상향 발현된 유전자의 GO 분석 결과, 조직 형태 형성 및 상피세포 분화와 관련된 경로가 상위 생물학적 기능으로 확인되었다. 이는 PFOA 노출이 간세포에서 조직의 재구성과 분화를 유도하여 종양 형성 및 암 발생에 관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. KEGG 분석에서는 총 25 개 경로를 도출하였다. 유의수준 기준으로 상위에 해당하는 PI3K-Akt signaling pathway 는 5 개 DEG 를 포함하였다. 이 경로는 암세포의 생존 및 성장과 밀접한 신호 전달 경로로, PFOA 노출이 암의 진행과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준다. 이 외에도 chemical carcinogenesis receptor activation, notch signaling pathway 등 간 독성 및 조직 분화와 관련된 경로가 확인되어, PFOA 노출이 간암의 악성화 및 발암 과정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뒷받침하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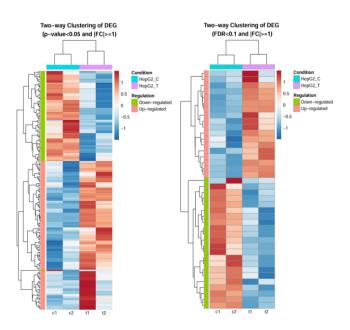


그림 1. DEG 발현 패턴에 대한 Heatmap

DEG 분석으로 발굴한 상향 발현된 유전자 중 일부는 간암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. 특히 MLPH, COL6A2, TNFSF12-TNFSF13 유전자들은 세포이동성, 상피-중간엽 전이, 신호전달 조절 등 암의진행과 전이에 관여하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. 이는 PFOA 노출이 해당 유전자들의 발현을 증가시킴으로써간암의 악성화 과정에 관여할 수 있음을 내포하며, 도출된 DEG 들이 향후 암 진행 및 환경 독성 반응평가를 위한 잠재적 바이오마커 후보로 활용될 가능성을 보여준다.

Ⅲ. 결론

본 연구는 간암세포주(HepG2) 대상으로 과불화화합물 노출에 따른 유전자 발현 변화를 분석하였다. PFOA 노출군과 대조군에 대한 RNA-seq 데이터 분석을 통해 차등 발현 유전자를 발굴하였고, 이들의 생물학적 경로가 암의 진행 및 전이와 연관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. 이는 과불화화합물이 간암 악성화에 관여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며, 도출된 차등 발현 유전자들은 향후 간암 진행 예측이나 환경 독성 반응 평가에서 잠재적 바이오마커 후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ACKNOWLEDGMENT

This work was supported by an internal fund/grant from the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 (ETRI) (24YD1110) and by an ETRI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(25ZD1110).

참고문헌

- [1] Brunn, H., Arnold, G., Körner, W., Rippen, G., Steinhäuser, K. G., Valentin, I. PFAS: forever chemicals—persistent, bioaccumulative and mobile. Reviewing the status and the need for their phase out and remediation of contaminated sites. Environmental Sciences Europe, 35(1), 30, 2023.
- [2] Vujic, E., Ferguson, S. S., Brouwer, K. L. Effects of PFAS on human liver transporters: implications for health outcomes. Toxicological Sciences, 200(2), 213-227, 2024.
- [3] Costello, E., et al. Exposure to per-and polyfluoroalkyl substances and markers of liver injury: a systematic review and meta-analysis. Environmental Health Perspectives, 130(4), 046001, 2022.